환희로 점철된 50년 바둑 인생

1953년 3월 10일(전남 영암 출생), 62년 입단, 63년 일본유학 세고에(瀨越憲作) 문하. 72년 귀국(일본기원 五단), 82년 九단 승단. 2012「바둑연감」에 나와 있는 조훈현의 신상정보다. 신상정보엔 53년생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52년생으로 올해 61세다. 환갑잔치는 생략하고 61세 되던 생일날 가족들끼리 식사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한다.

棋士인생 半백년, 프로기사가 된 후 오늘까지 조훈현이 걸어온 길은 그대로 한국바둑의 역사였습니다. 그 시대를 同樂한 우리는 바둑과 조훈현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패에 함께 담아 드립니다. –한국기원 임직원 일동

10월 12일 한국기원 상임이사회에서 조훈현 九단에게 입단 5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패가 수여됐다. 연초도 아니고, 연말도 아니고 10월에 기념패가 수여된 것은 금년 10월이 조훈현이 프로에 입문한지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62년 10월, 아홉 살의 나이로 입단했다). 50주년을 넘긴 기사가 몇 명 더 있지만 유독 조훈현 九단에게 기념패를 수여한 것은 앞서 인용한 기념패 문구에서도 확인되듯 조훈현이 걸어온 길이 한국바둑의 역사라고 할 만큼 그의 존재감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기념패 수여식 후 한국기원에서 조훈현 九단을 만나 환희로 점철된 기사생활 50년을 되돌아봤다.

–1962년, 당시 아홉 살의 나이로 입단해 올해로 프로 생활 5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50년을 회고한다면?

"자고나니 5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다고 할까요. 배달사고로 세고에 선생을 만나 바둑의

눈을 떴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최고위전(첫 타이틀)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전관왕, 응창기배 우승, 이창호를 만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모두 흘러간 옛 이야기가 돼 버렸네요. 한 마디로 압축하면 축복받은 행운아였죠."

1962년 한국에서 입단한 조훈현은 그 이듬해 일본으로 바둑유학을 떠난다. 당시 한국에서 바둑유학을 가면 기타니(木谷實) 문하로 들어가는 게 관례처럼 되던 시절이었다(조훈현보다 앞서 일본으로 바둑유학한 조남철 김인, 조훈현과 같은 해에 도일한 하찬석, 68년 도일한 윤기현 모두 기타니 문하로 들어갔다). 도일 당시 조훈현도 당연히 기타니 문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세고에와 조우하게 된다. 조훈현을 일본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기타니가 아닌 세고에 문하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열 살 소년 조훈현을 본 당시 팔순 가까이 된 세고에는 두 번의 지도기를 통해 조훈현의 기재를 발견한다. 첫 번째 지도기는 석점이었다. 여기서 조훈현이 이기자 세고에가 두점으로 다시 한번 둘 것을 제안했고 거기서 다시 조훈현이 승리하자 내제자로 낙점 받았다.

–50년 회고에서 세고에 선생에게 바둑을 배웠다고 언급하셨는데, 세고에 선생은 어떤 분이셨나요?

"처음 뵈었을 때가 일흔을 넘긴 고령이셨는데, 바둑하고 술밖에 모르던 분이셨어요. 저를 무척 아끼셨죠. 바둑은 주로 후지사와(藤澤秀行) 선생님께 배웠고 세고에 선생님은 기도정신이라든지…, 이를테면 명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고 늘 강조하셨죠."

–이창호의 스승으로서 보람도 느끼실 텐데요.

"제자가 대기사로 성장했으니 보람을 느끼지 않는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기사로 성장한 것에 대해 대견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처음 내제자로 받았을 때 이창호는?

"재주가 톡톡 튀는 것은 볼 수 없었어요. 밖으로 드러난 천재는 분명 아니었어요."

10월 1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한국바둑계를 대표해 허동수 이사장이 조훈현 九단에게 50주년 기념패를 수여했다.

흔히 이창호를 가리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천재라 부른다. 조훈현은 이창호를 내제자로 받아 가르치면서 그 재주를 금방 알아차렸다.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과 패권을 놓고 한바탕 겨뤄야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적과의 동숙. 그리고 스승과 제자….

–벌써 15년 전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제자 이창호와의 사제전쟁에서 패하면서 제자에게 1인자의 패권을 넘겨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수가 호랑이(이창호)를 키웠다'고 하는데, 당시 야금야금 타이틀을 빼앗아간 이창호가 밉지는 않았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밉지 않았겠어요. 미웠죠. 그런데, 그 미운 당사자가 제자였으니 기분이 묘했죠. 미우면서도 한편으론 뿌듯한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1인자에서 밀려나면 다시 1인자로 올라설 수 없는 게 바둑의 승부세계다. '사제전쟁' 당시 밀리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부질없는 짓인 줄 알면서도 지기 싫어 그야말로 사력을 다했죠.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창호의 젊음 앞에는 적수가 되지 못했어요."

조훈현의 우승 기록은 가히 기네스북 감이다. 국내외 기전에서 우승한 횟수만 무려 158회나 된다. 최초 우승은 74년 최고위전(내제자였던 이창호도 첫 타이틀이 최고위전이었으니 참으로 묘한 인연이다). 이후 무섭게 국내 타이틀을 쓸어 담기 시작하더니 80년에 9관왕, 82

(上) 조 九단은 귀국하자마자 전 국민의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척박했던 한국 바둑계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그는 사상 초유의 카퍼레이드를 벌이며 한국기원으로 입성했다. (下) 조남철·조훈현 九단이 은관 문화훈장을 수여받고 최병렬 장관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년에 10관왕, 86년에 11관왕으로 전관왕을 세 차례나 차지하는 전인미답의 기록을 세웠다. 국제대회에선 89년 제1회 응씨배 우승을 비롯해 개인전만 11회 우승을 차지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은?

"입단하고 첫 타이틀을 땄을 때, 세계대회 우승했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중 하나만 꼽으라면?) 응창기배를 우승했을 때죠. 당시 한국 바둑은 일본 중국보다 못할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우승해 더욱 기뻤죠."

–응창기배를 우승하고 나서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기억하는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 축하해주셨습니다."

–당시 본지에 재미난 사진이 실렸는데, 알고 있습니까?

"환장(?)한 거…. 처음엔 모르다가 주변에서 알려줘 깔깔 웃었습니다. 고의는 아니었을 텐데, 절묘하게 잘 찍었더라고요."

1990년 이전까지 한국바둑은 일본 중국보다 한수 아래였다. 88년 바둑대회 사상 최고 우승상금(40만 달러)를 내걸고 출범한 응창기배 우승은 일본, 혹은 중국기사의 몫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한수 아래로 평가받은 한국이 예상을 깨고 응창기배 초대 패권을 안았다. 그 주역이 조훈현이다. 한국기사로는 유일하게 초청을 받아 우승의 대업을 이루며 '바둑황제'로 이름을 알린다. 귀국 후 조훈현은 국가로부터 국위선양의 대가로 은관문화훈장을 받는다.

–응창기배 우승을 비롯해 수많은 영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혹, 바둑으로 힘들거나 아팠던 기억은?

"패배했을 때, 또 그 패배가 타이틀 결정판이면 더욱 쓰라린 법이죠. 비록 그 상대가 제자였을지라도."

–그런 모범답안 말고 리얼 버전으로?

"틀에 박힌 모범답안은 늘 푸대접을 받는다니깐…. 일본 입단대회에서 3승인가 4승인가 하고 있었는데 감기에 걸려 갑자기 열이 39, 40도를 오르내리는 거예요. 다음 날 전승자와 대국을 해야 하는데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죠."

–입단대회에서 기권했다는 기록은 못 봤던 것 같은데요.

"기권을 생각했었죠. 그래서 (세고에) 선생님께 도저히 바둑을 둘 수 없을 것 같다고 여쭸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나가서 지는 한이 있어도 바둑을 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빙빙 도는데 다음 날 어쩔 수 없이 바둑을 두게 됐죠."

–결과는?

"당연히 졌죠.(–그런데 입단은?) 리그전이잖아요. 상대가 전승자여서 입단이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이후 상대가 2패를 당하는 바람에 입단할 수 있었죠."

혹, 술이 아닌 박카스 먹고 취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거짓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조훈현은 술 한잔 못 먹는 것은 물론이

고 박카스 한 모금도 못 먹는 사람이다. 술로 망가진 유명 스타가 어디 한 둘인가. 그런 점에서 조훈현은 축복받았다고 할밖에.

–술은 전혀 못하는 게 맞습니까?

"전혀 못하죠. 선천적으로 술 알레르기 같은 게 있나 봐요. 몸에서 전혀 안 받아요."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보면 드셔 보긴 했단 말씀이군요.

"아주 오래 전에 소주 한잔을 딱 한 번 마신 적이 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매스껍더니 조금 있다가 토하고 하면서 세 번 쓰러진 뒤론 다시는 입도 안대죠."

–술은 그렇다 치고 박카스 드시고 취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박카스배 때 무심코 먹었다가 몽롱해 혼쭐이 났죠. 박카스에 취했는지 두 눈 멀쩡히 내고 살아있는 대마(?)를 쫓고 있지 뭡니까. 그 사건 이후로 박카스에 취한다는 얘기가 돌았죠. 실제로 그 뒤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 바둑계는 10대, 20대들의 잔치다. 세계대회 본선에서 30대는 드문드문하고 10대, 20대가 판을 친다. 얼마 전 결승진출자 두 명을 가린 제7회 응씨배도 박정환(93년생)과 판팅위(96년생) 10대끼리의 대결로 압축됐다.

–나이 들면 오감이 무뎌지고 그로 인해 기량도 떨어진다. 바둑의 최고 전성기를 몇 살로 보는지?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일본바둑을 휩쓸었던 사카다(坂田榮男) 선생의 경우는 40대가 최고 전성기였죠. 그 뒤로 린하이펑(林海峯) 九단은 20대였어요. 이창호도 20대가 최고 전성기였죠. 어쩌면 10대 후반이 최고 전성기가 될 지도 모르죠."

–조국수님의 경우는 언제를 최고 전성기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전관왕하던 시절이 아닐까 싶어요. 30대라고 봐야죠."

–요즘 세계바둑계를 보면 일본의 존재가 미미합니다. 국가시드를 받아 출전한 몇몇 기사가 본선에 모습을 보이다가도 16강, 8강을 치르면 모두 탈락하는 게 흔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4강에서 일본기사를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 됐는데, 일본바둑의 몰락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스타가 없는 게 몰락의 요인이라고 봐요. 이창호 이세돌 박정환 등 한국바둑은 스타기사가 계속 나온 반면 일본은 손꼽을 만한 스타가 십수 년째 나오지 않고 있어요. 스타 부재는 인기를 떨어뜨리고 결국엔 바둑 인구감소로 이어져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죠. 일본의 쇠퇴는 바둑의 세계화 관점에서 봐도 엄청난 마이너스죠. 한중일이 균형 발전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죠."

–일본이 하락세라면 중국은 초강세입니다. 창하오 이후 콩지에 구리 천야오예 등 강자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90후 세대, 95후 세대로 불리는 신예들까지 가세해 중국의 위세가 대단한데요.

"중국의 국가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하고 있어요. 인구도 워낙 많고 하다보니 각 성에서 잘 두는 사람만 뽑아 중국 기원에서 집중육성도 하고요. 공 들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법이죠."

–앞으로 한중 대결 구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수적으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이창호 이세돌이 해왔던 것처럼 박정환이 몇 년 끌어주고, 박정환 이후에는 다시 새로운 누가 나와 끌어가고 하겠죠. 지금까진 중국에 밀리지 않고 잘 왔다고 봐요."

바둑 외길 50년을 걸어온 조훈현 九단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나에게 바둑은 어떤 것인지 물었다.

"부와 명예, 환희를 안겨준 보물 중의 보물! 어릴 적 우연히 접한 바둑이 너무 좋았고, 그 재미에 푹 빠져 50년의 세월을 함께 했죠. 나의 길의 동반자. 바둑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인터뷰/구기호 편집장〉